

책 받들기와 책과 친구하기

오진원 | 웹진 <오른발 왼발> 운영자

가끔 서점에서 책을 보고 있는 아이들 모습을 본다. 아이들 눈길은 복잡한 서점에서도 전혀 흩어지지 않고 책에 고정돼 있다. 완전히 책에 몰입한 모습이다. 그런 아이들을 볼 때마다 책을 진짜로 싫어하는 아이들은 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이상한 건 이렇게 서점에서는 몇 시간이고 쭉그려 앉아서라도 책을 읽는 아이들이 집에서는 책 읽기를 싫어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 이 둘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 4학년 된 조카에게 물었다.

“너 서점에 가서 어떤 책 봤니?” 순간 조카의 눈이 반짝인다. “그리스 신화랑요 그거 제목이 뭐였지? ‘으악’ 으로 시작하는 시리즈인데요 무지 재미있어요.” “서점에 가서 책보는 거 재밌니?” “네. 내가 보고 싶은 책을 맘대로 볼 수 있잖아요. 다른 아이들도 다 그래요.”

보통 때라면 재밌는 책을 갖다 줘도 읽지 않던 조카가 눈을 반짝이며 대답한다. 조카가 재밌다고 대답한 책의 제목이 조금 실망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하나의 해답을 본다. ‘보고 싶은 책을 맘대로 볼 수 있다’ 는 거다. 이걸 한번만 뒤집어 생각해보면 아이들이 집이나

학교에서 읽는 책은 자기가 맘대로 골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재미가 없다고 여긴다는 걸 알 수 있다. 조카가 한 마디 더 덧붙인다. “학교 도서관에는 재미없는 책들만 있어요. 학교에서 추천도서 목록 봤거든요. 근데 그 책들도 거의 재미없는 책들이에요.”

조카가 학교에서 받았다는 추천도서 목록을 살펴보니 몇권이 좀 걸리긴 해도 대부분 내 맘에 드는 책들로 채워져 있다. 좀 이상하다 싶어 여기 있는 책을 읽어 봤냐고 물으니 읽은 책은 두세권뿐이란다. 1백권 가까이 되는 책 가운데 두세권만 읽고서도 거의 재미없는 책들이라고 단정짓다니! “선생님은 맨날 재미없는 책만 읽으래요.”

학교에서 권하는 책은 재미없는 책이란 공식이 딱 성립돼 있는 듯하다. 그렇다면 혹시 아이가 ‘책이 재미없다’ 고 생각하는 밑바닥엔 ‘학교’ 와 ‘선생님’ 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생긴다. 책에서는 늘 뭔가 배워야 하고, 배운 걸 확인받아야 하고, 책을 읽으면 쓰기 싫어도 독후감을 써서 내야 하는 부담감 말이다. 그런 아이에게 평상시의 책읽기는 전혀 즐거운 일이 되질 못한다. 서점에서 친구들과 놀면서 이책 저책 뒤적이며 마음에 드는 책을 맘껏 골라 읽을 때만 재미를 느낀다. 그것도 특히 어른들이 달가워하지 않는 만화책을 볼 때면 그 쾌감은 더욱 커진다. 불량식품이 더 맛있는 것처럼 말이다.

책에 담긴 즐거움보다는 책이 주는 부담감 때문에 책을 피하는 아이들. 아이들을 그렇게 만든 건 책을 지나치게 경건시키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아이들은 책의 경건함에 숨이 막혀버리고 만다. 어른도 마찬가지다. 어쩌면 자신들이 안고 있는 책의 무게를 아이들의 장래를 핑계로 던지시 아이들에게 떠넘기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래서는 진짜 책 읽는 재미를 놓치게 될 거란 사실이다. 아이들이 책을 친구처럼 여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자. 그럼 아이들은 당장 책과 친구가 될 것이다. ■

통권 제323호 2002년 5월 5일 발행
발행인 ————— 김낙준
편집이사 ————— 임홍초
편집자문 ————— 김정란 이정우 임지현
편집장 ————— 박천홍
기자 ————— 강성민 김장근
————— 차정신 박옥순
사진 ————— 김경록
편집디자인 ————— 정병규디자인 안지미
————— 박기아
업무부장 ————— 윤동호
업무·광고 ————— 이희천 김동필 천창환
등록 ————— 1987년 6월 9일 - 다 435
발행처 ————— (재)한국출판금고
————— 732-1434-5
인쇄처 ————— 평화당인쇄주식회사
————— 이일수
출판저널 ————— 110-190
—————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 732-1431-2 편집
————— 732-1433 업무·정기구독문의
FAX ————— 722-1174
E-mail ————— book732@chollian.net
하이텔 ————— chulpan
천리안 ————— book732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 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치 구독료 4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대이나 사무실로 우송해드립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수협·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붙임하거나 국민은행 계좌번호 023-01-0219-936 (예금주:출판저널)을 이용하십시오.

공급 |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